

프로그램 운영개요

프로그램명	암곡의 비밀을 찾아서		
활동목표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과 문화재를 지키자.		
해설주제	무장봉의 지질구조와 생태, 문화		
해설재료	자연환경, 문화재	소요시간(시간/분)	2시간30분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분)
도입 (화장실 쉼터)	인사말	국립공원과 탐방로 소개		5
1구간 (둘째 쉼터)	동. 식물 (봄. 여름)	무장애 탐방로. 변산바람꽃. 때죽나무. 원앙. 후투티. 호반새	현장환경. 사진	10
2구간 (셋째 쉼터)	무장봉의 지질 (가을)	너덜. 고위평탄면. 습지. 굴피나무	현장환경	10
3구간 (여섯째 쉼터)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암곡의 지명유래 삼. 담비. 수달	사진	10
4구간 (큰 바위)	환경지표종 (겨울)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술의 천이. 서어나무	현장환경. 사진	10
5구간 (무장사지 입구 넓은 공터)	국립공원의 정의	그린포인트. 자연물 놀이	놀이에 따른 준비물	30
마무리 (무장사지)	신라인들의 평화 메세지	아미타여래 조상사적비와 삼층석탑	현장문화재	15

도입(화장실 쉼터)-국립공원과 탐방로 소개

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탐방 길을 떠나는 자연 환경 해설사 000입니다. 우리나라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경주는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토함산, 남산, 소금강, 구미, 단석, 서악, 대본, 화랑 8개 지구이며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은 토함산지구 암곡입니다.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길은 총 8.9km이며 오늘 저와 함께 보물을 찾는 길은 이미 1400년 전 세계평화의 메시지가 있는 무장사지 까지 2.4km로서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가시는 동안 계곡에서 암곡의 지층을 보실 수 있고 굴피나무에서 역사를 알 수 있고 서어나무에서 대륙을 느낄 수 있으며 무장사지에서는 신라인들의 정신을 담아가는 것으로 해서 총 6개 구간으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물을 품고 있는 정상 무장봉 에서는 한반도의 지각 변동으로 인한 감동을 실감하고 가실 것입니다. 보물을 찾아 나서기 전 안전에 유의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 볼까요.

토함산

경북 경주시 보덕동 ·불국동 ·양북면

높이 745 m. 경주 지역에서 가장 큰 산으로 신라시대에는 동악(東嶽)이라 했고 호국(護國)의 진산(鎭山)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이 산에 있으며 일대가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구간 (둘째 쉼터) - 동. 식물 (봄. 여름)
무장애 탐방로
<p>암곡이라 하여 아주 좁은 골짜기 인줄 아셨죠? 생각과 달리 넓게 잘 조성되어 있는 탐방로를 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p> <p>암곡 탐방로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2016. 9월 “씩쓸바람”이라고 불리는 풍속에다 비 까지 동반한 슈퍼태풍 차바가 오기 전에는 노면과 계곡의 높낮이가 동일하여 계곡으로 걸어 다녔죠. 그런데 차바로 인해 불어난 계곡물로 탐방로 전 구간이 유실되어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탐방을 할 수 없었기에 또다시 탐방로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높이를 차별화 하였고 조금 전 쉼터에서부터 0.5km 구간을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탐방이 가능한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하여 누구나 편하게 탐방 할 수 있는 암곡 탐방로 입니다.</p>
변산바람꽃
<p>얼음이 채 녹기도 전에 암곡에 찾아온 변산 아씨. 곱게 꽃단장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변산 아씨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한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개체 수가 적어 보존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누가 말했든가 스타는 맨 나중에 등장한다고!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변산아씨의 모습은 그리 긴 시간을 내어 주지 않아요. 아씨답게 봄을 암전히 불러놓고 소리 없이 모습을 감추는 변산아씨는 꽃도 보기어렵지만 씨앗보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p>
때죽나무
<p>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려고 계곡 쪽으로 몸을 돌린 이 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 때죽나무예요.</p> <p>때가 끼어 때죽나무인가? 하지만 어감과는 달리 매력적인 검은 피부를 가진 매끈한 나무입니다. 열매 껍질에 독성이 있어 옛날에는 열매를 짊어 물고기를 떼로 잡았다 합니다. 또 사포닌 성분이 있어 기름때를 쓱 빼준다고 때죽나무라 하네요. 대체로 어린이 날이 지난 어느 날 긴 꽃대에 다섯 개의 하얀 꽃잎을 살포시 펼치면서 1개의 암술에 10개의 노란수술이 달려 수줍은 듯 땅을 보고 피지요. 보통 열흘 남짓 진한 봄의 향기를 풍기고 9~10월이 되면 은회색 육질 안에 딱딱한 씨앗 1개씩을 담고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한 가을을 보여주는 때죽나무입니다.</p> <p>귀를 즐겁게 해주는 맑은 자연의 소리 새 소리가 들리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p>
원앙
<p>때죽나무 향기가 진동 할 때 이곳을 하늘 길을 날아오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p> <p>천연기념물 327호이면서 소나무와 함께 경주국립공원 깃대종인 원앙 한 쌍이 둥지</p>

를 틀어요.

부부금슬의 대명사 원앙은 기러기목 오리과이며 수컷은 '원' 암컷은 '앙' 그래서 '원앙'입니다. 전국 산간계류에 자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원이는 잔뜩 멋을 부려 귀공자로 변신을 하죠. 양이를 만나 사랑을 하고 짝짓기가 끝나면 화려한 장식깃은 모두 빠지고 양이와 같은 모습에 부리만 붙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사라진 원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짝을 찾아 가는 건지 말없이 정처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무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양이는 오롯이 육아를 혼자 담당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앙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나요?

부부금슬의 대명사의 실제 주인공은 기러기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전통 혼례 중 '전안례'라는 순서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 어머니에게 기러기 보에 기러기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지키며 한번 맺은 연을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하기에 기러기처럼 살겠다고 사위가 장모님에게 믿음과 약속을 드리는 예절이지요.

결혼 때 선물 받은 목각 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후투티

원앙 못지않게 화려하고 렌즈 속에 담고 싶어 따라다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 맞혀볼까요?

뽕나무 발 주변에 주로 서식한다고 오디새. 머리 깃털이 인디언 추장처럼 생겼고 여름철새이며 주로 딱따구리가 만들어 놓은 입구가 좁은 집을 이용하여 알을 낳고 번식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후투티'

후투티는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생활하며 성장기에는 땅강아지와 지렁이를 먹으며 한 번 정해진 둥지는, 겨울동안 잠시 임대를 주고 여러 해동안 한 둥지를 고집한답니다.

호반새

6월 중순 아침 호르륵 호르륵 독특한 울음소리에 저는 "호루라기 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귀에 익어가던 더운 여름날 나뭇가지에 먹이를 물고 있는 핑크빛 작은 새가 제 눈에 들어 왔어요. 울음의 주인공은 '호반새'였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죠. 등 부위가 분홍색인 후투티와 달리 몸 전체가 붉은 '불새' '호반새'도 여름에만 우리나라에 피서를 오는 여름철새 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우거진 숲속에 보금자리를 틀어 험사리 모습 발견할 수가 없으며 서식유무는 독특한 울음소리로 확인 할 수 있는 숨바꼭질 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새이며 먹이는 개구리. 담수어 등 아주 건강한 숲에서만 서식하는

환경 지표 종으로 호반새의 별장도 이곳 암곡에 있습니다.
 가을 자락에 들어서면 후투티와 호반새는 내년에 또 오리라 마음먹고 긴 여행을 떠나겠죠.
 만약 우리가 여행을 다녀온 후 나의 보금자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선 황당하겠죠. 그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 조용한 걸음으로 하늘 길을 다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다음 보물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

2구간 (셋째 쉼터) - 무장봉의 지질 (가을)
너덜
<p>햇빛이 주는 선물을 받으며 암곡의 지질보물을 발견하는 두 번째 구간입니다. 탐방로 왼편 산비탈에 안전망을 두른 곳에는 절벽 바위들이 떨어져 생긴 너덜이 있습니다. ‘너덜경’의 준말로 ‘돌들이 깔려있는 산비탈’이라는 순수 우리말이지요. 너덜에는 길동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맹독을 가진 살모사가 세 종류 살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7.4는 까치 살모사로 나무 가지와 가지로 다니죠. 그래서 탐방을 할 때는 스틱과 둥근 모자를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암곡에도 3종이 모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이유는 없어요.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주면 도망가거나 지나가도록 지켜보거나 비켜서 가면 되니까요.</p>
고위평탄면
<p>암곡은 사시사철 어지간히 가물지 않으면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장봉 지형 때문이지요. 암곡의 정상 무장봉은 고위평탄면으로 해발고도 600m부근의 정상부에서 관찰되는 지형으로 한반도 지각 융기의 증거로, 과거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진 지형 면이 지각이 융기하면서 산정부에 남은 넓고 평탄한 지형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 속이었다는 것 이죠. 실감이 나나요? 땅이 융기하면서 지각의 변동으로 암곡 습지가 생겼고 틈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물이 세어 나오기에 덕동호를 채우는 발원지이며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돌의 색 깔로 암곡의 지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푸른 코발트색 암석으로 흐르는 물조차도 푸른색으로 보이며, 4구간에서는 매끄러운 검은 돌. 습지위</p>

<p>쪽은 밝은 황토색으로 우리나라 지질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곳이지요. 여러분들도 지질학자가 되어 무장봉을 탐방하시는 동안 지층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p>
<p>습지</p>
<p>정상인 고위평탄면에서 조금 내려오면 ‘자연의 허파’ ‘늪’ ‘빨’ ‘수렁’ 이라고 부르는 암곡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는 전체면적의 10%이고 70%는 역새와 샷갓초로 형성되었고 나무의 천이는 극상림인 오리나무가 주를 이루며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토함산 국립공원 암곡에는 1990년 말까지 일부지역이 목장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역새가 자연 밀생하여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이 익어가가는 가을의 멋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추석이 지나면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경주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지입니다.</p>
<p>굴피나무</p>
<p>솔방울처럼 생긴 작은 열매가 다음해 여름까지 달려있는 굴피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나무라하면 당연히 소나무이죠. 하지만 아스라이 먼 옛날 석기. 청동기시대부터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나무는 귀족나무 굴피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와 참나무의 막강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목책으로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의 몸체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임금의 시신을 감싸는 목관으로 이용되었던 귀족나무 굴피나무는 몽고란을 격고 고려말의 혼란기와 조선의 개국이라는 역사와 함께 베어지고 불타는 흑사를 격어면서 햇빛만 풍족하면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소나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천민으로 전락한 지금은 산속에서 띄엄띄엄 자라는 굴피나무 이지만 암곡에는 큰 키의 나무로 쉽게 볼 수 있으며 흔히 굴피 집을 만드는 재료로 호해를 받기도 하는데 굴피집의 ‘굴피’ 는 굴참나무 껍질의 준말입니다. 호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p> <p>그럼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다음 보물을 찾아 출발!</p>

<p>3 구간(여섯 번째 쉼터)-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p>
<p>암곡지명유래</p>
<p>주위 나무랑 꽃들과 많은 얘기 나누셨나요? 여러분들이 탐방중인 암곡은 깊은 골짜기 안쪽이라 어두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암실, 암곡으로 불리어 졌습니다. 깜깜함 속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밝아지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암곡이란 산을 세워 놓은 듯 깜깜한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를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밝아진다, 닦아진다는 역설적 의미의 지명입니다. 암곡을 오려면 보문단지에서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를 거쳐 꼬불꼬불 길은 달려와야 합니다. 굽이가 어찌나 긴 고개인지 그래서 이고개의 이름은 장령입니다. 1970년대 관광도로로 닦은 길인데 장령을 넘어오면 경주시민의 상수호인 덕동호</p>

입니다.

기와를 굽던 와요지가 있었기에 제골. 기와골. 기와굴로 불리어지다가 지금은 와동.

마을 지형이 떡을 찌는 시루모습과 닮았다 하여 시루 골이라 하다가 시랫골로 변형된 시랫골.

마을 서쪽에 전각이 있고 오른쪽에 계정이라 새겨져 있어 계정마을.

덕동댐이 생기면서 수몰 지구에서 이주하여 새로이 마을을 형성한 대성마을.

옛날 왕이 피난 중 왕세자가 탄생하였다 하여 왕산, 왕생이라 불리어 지는 왕산마을. 암곡은 이렇게 5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동호 수몰지역에 고선사지가 있었고 마을 제일 안쪽에 무장사지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라통일 전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았고 이때 마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초기에는 명곡이라 하다가 조선 말엽에 암곡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탐방하는 암곡 탐방로는 신라 진덕여왕 때 황룡사에서 스님이 되어 의상대사와 당나라 유학길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는 깨달음을 안고 신라로 돌아와 불교를 대중화 시키신 큰 스님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효대사께서 분황사를 출발하여 고선사에 들러

혜공스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오어사로 넘어가실 때 걸었던 길입니다.

또 보부상들이 연일 현(포항)포구를 찾을 때 가장 빠른 길로 택했던 보부상길.

또 천주교 성지순례길 이라고 합니다.

삶

그 옛날 원효대사님이 이 길을 걸을 때는 어떤 마음이였을까요?

숲속 친구들이 다니는 길을 손님, 친구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셨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걷고 있나요? 우리가 주인이고 숲속친구들이 손님이 된 현실에

낮에는 큰 길을 내어주고 밤길을 주로 걷는 생태계의 자존심 왕좌. 보란 듯이 길 한가운데 배설물을 두어 영역을 표시하는 대범함. 우리나라 유일한 고양이과 야생동물로 불분명한 반점이 많으며 이마양쪽에 흰줄이 뚜렷하고 입 근육이 발달되어 물어뜯는 힘이 매우강한 삶은 단독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담비

날렵하기를 둘째가라면 서럽다 하는 담비는 나무타기를 잘하고 잡식성이며 무리지어 살기를 하고 사냥을 할 때는 협동심을 발휘하여 호랑이한테도 덤빈다는 담비는 족제비과로 긴 꼬리에 광택이 나는 부드러운 털을 가졌기에 사치와 부의 상징으로 사냥꾼들에게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겼죠.

수달

삶과 담비가 땅과 나무의 강자라면 물속의 강자는 수염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물 밖으로 살짝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는 치밀함의 소유자 수달은 물과 물을 넘나들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똥은 돌 위에 살짝 놓아 둔데요.

단독생활을 좋아하며 야행성 이지만 낮에도 활동을 하고 갈대로 만든 둥지나 바위 틈, 굴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입구는 항상 물이 있는 쪽이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자연에서 보신 적 있나요?

밀렵과 수질오염, 서식지파괴 등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 담비. 수달은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어 빨간 명찰을 달게 된 멸종위기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아이들이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아이들. 다행히 이곳 암곡에서 배설물 흔적이 발견되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손님이 되어 귀한 흔적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

4구간(큰 바위) - 환경 지표 종(겨울)

참개구리

오시는 동안 귀한 흔적을 찾으셨나요?

겨울이 되면 계곡은 장거리 봅슬레이 경기장으로 변합니다.

차가운 얼음 속에는 졸졸졸 맑은 물이 흐르고 부족한 에너지를 겨울잠으로 해결하는 동물들 중에 환경 지표 종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도 함께 잠을 잡니다.

참개구리는 논개구리라고도 하는데 황토색이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개구리였으며 1000개 정도의 알을 뭉쳐서 다른 물체에 부착하지 않고 물속에서 부화를 하지요.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알을 떠다니게 두어 물속에서 부화하는 점프력이 좋은 북방산개구리는 진한갈색에 주둥이가 뾰족하며 눈 뒤에만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보다 조금 작은 계곡산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주둥이가 둥글고 흑갈색에, 물 흐름이 빠른 돌에 알을 붙여 물살이 센 계곡에서도 살아남는 유전자를 가진 개구리입니다.

세 종류를 우리나라 산개구리라고 하는데 몸에 좋다고 잡아먹고 실험용으로 실험대로, 서식지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어 삶. 담비, 수달처럼 멸종 위기종 으로 빨간 불이 켜진 아이들입니다.

물과 물을 넘나들며 환경이 건강함을 알려주는 환경감지기가 사라진다면 우리 또

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숲의 천이
<p>이 울창한 숲에 나무만 모여 있으면 숲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숲이란 무수한 식물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숲은 산소 탱크요, 천연에어컨. 녹색 댐. 청소가. 천연아파트. 사람의 고향입니다. 인간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치른 후 최후의 승자가 되어 차지합니다. 이것을 숲의 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해살이풀이 자라고 다음엔 여러해살이풀이 자라고 그다음엔 가시가 많은 키 작은 나무에서 키 큰 나무인 소나무가 자라다 최후의 승자 까치박달, 서어나무가 온대림 숲의 대표주자 가 되죠 이것을 극상림 이라고 합니다.</p>
서어나무
<p>극상림의 대표주자 서어나무는 어원은 알 수 없지만 서쪽에 있는 나무(서목)로 우리말로 서나무라고 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보디빌더 몸처럼 멋있는 근육과 매끈한 피부에 회색 칠을 하고 아주 멋진 몸을 자랑 하죠. 보통나무들 나이테는 동그랗게 생겼지만 서어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양분을 많이 받은 부위와 적게 받은 부위 차이가 나겠죠? 열매는 손가락 길이만한 대궁에 이삭처럼 밑으로 길게 늘어지고 긴 손톱같이 생긴 포엽이 수십 개가 붙어있고 쌀알크기의 씨앗이 포엽 밑에 숨어 있습니다. 서어나무가 숲의 최고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있네요. 장수하늘소 때문입니다. 장수하늘소는 1968년 경주국립공원과 같은 해에 천연기념물21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수하늘소 종은 9종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는데 장수하늘소만 유일하게 아시아에 분포해 과거 아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이 연결 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종으로서 생물 지리학적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하늘소 성충은 신갈나무 줄기의 흑갈이 나온 부분의 수액을 빨아먹고 살지만 유충은 죽은 서어나무를 갉아 먹고 산다고 하네요. 아직 서식 유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멋있는 남자나무 서어나무 군락지가 있고 신갈나무가 있는 암곡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p>

5구간-무장사지 입구 넓은 공터
국립공원의 정의
<p>624m높이의 무장봉은 많은 것을 품고 있네요. 계곡에는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속에 작은 풀꽃부터 멸종 위기 종. 천연기념물. 우리나라특산종. 중매쟁이 작은 곤충들까지 생태계가 살아있는 이곳</p>

암곡이 국립공원인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댁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구동성으로 “참 좋아요! 또 와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함박웃음을 짓고 가시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을까요?

국립공원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지역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정 관리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도모를 하는 곳“을 말하죠.

이런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속적으로 감상하고 즐기려면 우리들이 먼저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겠죠?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그린포인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여 자연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리고 누구나 다 실천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하실 수 있죠?

그럼 넓은 곳에서 간단한 자연놀이를 한번 해 볼까요.

(휴식 및 자연체험놀이 소요시간 15~20분)

6. 마무리-무장사지유래. 사적비. 삼층석탑

암곡 탐방지원센터에서 10번의 물길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무장사지입니다

옛길은 왕산마을을 출발하여 12개울을 더러는 신발을 벗고 건넜습니다.

무장사지는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 특성상 서향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좌우 협곡을 끼고 있고 능선 말단부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이용하여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맨 아래쪽에는 삼층석탑, 가운데는 금당, 윗부분이자 금당의 동쪽에는 미타전을 건립하였습니다.

무장사지에 대한 이야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 1.태종무열왕이 더 이상 백성들 피를 흘리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투구와 병기를 골짜기에 감추었다 해서 투구무. 숨길장. 절사 무장사.
- 2.신라38대 원성왕의 부친으로 명덕대왕으로 추봉된 대아간 효양이 그의 숙부인 파진찬을 추모하여 창건하였다는 기록과
- 3.39대 소성왕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왕비 계화왕후가 ‘아미타불에게 지성으로 귀의하면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재산과 재물로 미타전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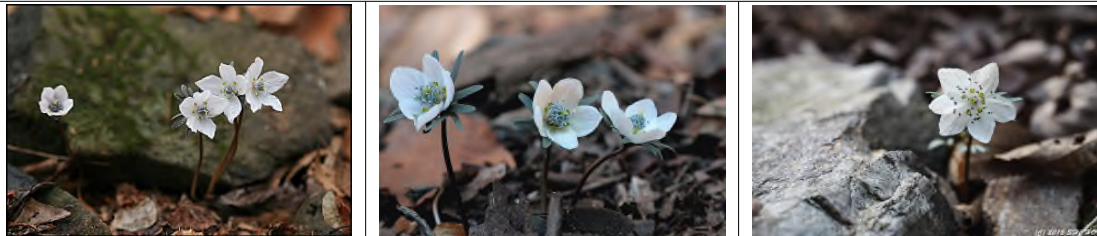
고려시대 까지 절은 남아 있었으나 미타전은 허물어 졌고, 조선 영조 때 경주부윤 홍양호가 무장사에 관리를 보내었을 때는 암자와 같은 건물과 스님이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며 또 1871년 무장사를 찾았던 김정희가 비편을 새로 발견한 뒤 옮겼다는 내용을 미루어 보면 19c초반 이후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미타 상을 조성한 인연을 적은 비문인 아미타여래조상사적비의 보물125호 이수와 귀부의 특징은 비좌의 네 면에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있고 통일신라 이수의 변천사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보물126호 3층 석탑은 신라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특징은 상층기단에 우주와 탕주를 두지 않고 각 면에 2개씩 안상이 조각 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석등, 옥개석과 미타 전 자리로 짐작 되는 곳에 10개의 초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북이산가족상봉 장면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과 만나는 시간보다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긴 우리는 1400년 전 투구와 무기를 숨기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 세계평화의 메시지가 있는 이곳에서 더욱 통일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변산아씨가 봄을 열어주었고, 후투티와 호반새의 간절한 바람으로 여름을 보냈고, 무장봉 역새로 가을을 담고, 봄슬레이 경기장 밑에서 잠을 자는 산개구리들로부터 겨울을 지내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지구 암곡의 느낌은 어땠나요?
남은 일정도 즐겁고 안전한 탐방이 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탐방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변산바람꽃



산지의 햇볕이 잘 드는 습윤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땅속 덩이뿌리 맨 위에서 줄기와 꽃받침이 나오고, 꽃잎은 꽃받침 안쪽의 수술과 섞여서 깔때기 모양으로 솟아오른다. 꽃받침이 꽃잎처럼 보이는데, 보통 우산처럼 생긴 꽃받침 5장이 꽃잎과 수술을 떠받들 듯 받치고 있다. 처음에는 꽃받침 끝이 위로 향하다가, 차츰 밑으로 처지면서 느슨하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듯한 모습으로 바뀐다. 꽃받침은 6~7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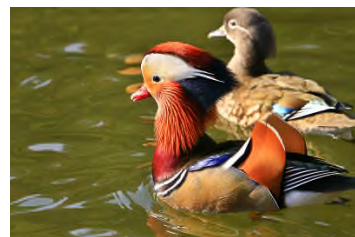
2월에서 3월 사이에 꽃망울을 터뜨리기 때문에 쉽게 보기 어렵다. 열매는 4월에 익는다.
한국 특산종이다.

때죽나무



산과 들의 낮은 지대에서 자란다. 낙엽소교목으로 높이는 10m 내외이다. 가지에 성모가 있으나 없어지고 표피가 벗겨지면서 다갈색으로 된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톱니가 약간 있다. 꽃은 단성화이고 종 모양으로 생겼다. 5~6월에 지름 1.5~3.5cm의 흰색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총상꽃차례로 2~5개씩 밑을 향해 달린다. 꽃부리는 5갈래로 깊게 갈라지며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대의 아래쪽에는 흰색 털이 있다. 열매는 삭과로 9월에 익는다.

월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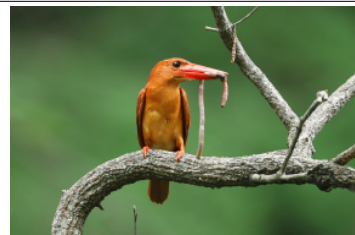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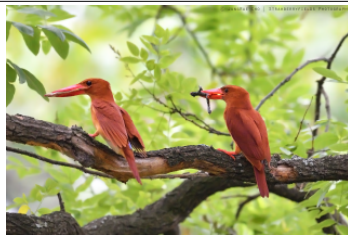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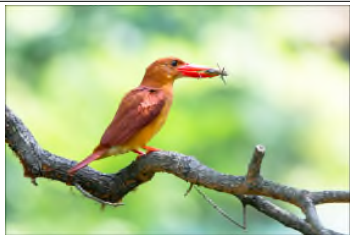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이나, 겨울에는 겨울을 나려는 무리들이 내려오므로 봄·가을의 이동 시기에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광릉 숲에서는 해마다 15~20마리의 무리가 번식한다. 여름에는 4~5마리 또는 7~8마리의 무리가 활엽수가 우거진 계류나 물이 쉼 곳 또는 숲속 연못 등지에 살면서, 저녁에는 계류의 바위 위나 부근의 참나무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잔다. 겨울에는 북녘에서 번식하는 무리가 내려와 저수지·수원지·호수·바닷가·냇가 등지에서 몇 마리 또는 100~200마리씩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후투티



한국에서는 중부 이북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이다. 구릉이나 야산의 나무숲에서 번식하며 때로는 인가의 지붕이나 처마 밑에서도 번식한다.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살고 주로 땅 위에서 생활한다. 4~6월에 5~8개의 알을 낳아 암컷 혼자 16~19일 동안 품는다. 새끼는 부화한 지 20~27일 만에 등지를 떠난다. 먹이는 곤충류의 유충을 비롯하여 딱정벌레·나비·벌·파리·거미·지렁이 따위를 잡아먹으며, 성장 기간에는 주로 땅강아지와 지렁이를 먹는다.

호반새



몸길이 약 27.5cm이다. 몸 윗면의 머리·등·날개·꼬리는 붉은색이고 아랫면은 턱밑을 제외하고는 오렌지색이다. 다리도 붉은색이고 부리는 색이 더 짙다. 한국에서는 드물지 않은 여름새이다. 산간 계곡이나 호숫가의 혼효림과 활엽수림 등 우거진 숲속 나무구멍에서 번식하는데, 평지 농촌이나 농경지 부근에서도 낙엽활엽수의 나무구멍을 이용하여 번식하기도 한다. 나는 모습이 민첩하다. 계류나 물가 나뭇가지 위에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가재 등을 잡아 나뭇가지에 부딪쳐 기절시킨 뒤 먹는다. 딱정벌레·매미·메뚜기 따위의 곤충도 곤잘 먹는다. 산란기는 6~7월이며 한배에 5~6개의 알을 낳는다. 한국·일본·중국(동북부)에서 번식하고 필리핀·셀레베스섬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굴피나무



굴황피나무·산가죽나무·굴태나무라고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꾸정나무라고도 부른다. 산기슭의 양지바른 곳이나 바닷가 수성암 지대에서 자란다. 높이 5~20m정도이다. 잎은 홀수깃꼴겹잎이며, 잎자루가 없는 7~19개의 작은잎으로 이루어진다. 작은잎은 타원형 바소꼴 또는 달걀 모양 바소꼴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골이 깊은 톱니가 있다. 잎의 양면에 흰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꽃자루에도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5~6월에 노란빛을 띤 녹색 꽃이 피는데 수꽃이삭은 5~8cm, 암꽃이삭은 2~4cm이다. 성숙한 암꽃이삭은 솔방울 모양이다. 열매이삭은 긴 타원형이고 검은빛을 띤 갈색이며 털이 없다. 포 조각은 떨어지지 않으며 바소꼴이다. 열매는 날개를 가진 견과이고 9~10월에 익는다.

삼



삼은 산림지대의 계곡, 바위굴, 연안, 관목(비교적 키가 작은 나무)으로 덮인 산골짜기 개울가에서 주로 살며, 마을 근처에서 살기도 한다. 단독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며, 야행성이지만, 골짜기의 외진 곳에서는 낮에도 먹이를 찾아다닌다. 먹이는 주로 쥐 종류와 작은 동물, 꿩 새끼,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닭, 오리, 곤충 등을 잡아먹기도 한다. 고양이처럼 생겼으나 고양이보다 몸집이 크고 불분명한 반점이 많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머리는 둥글며, 턱의 근육이 발달하여 먹이나 다른 물건을 물어뜯는 힘이 매우 세다. 꼬리에는 고리모양의 가로띠가 있으며 눈 위 코로부터 이마 양쪽에 흰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담비



한국 멸종위기II급으로 전국의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나 서식지 파편화 등에 따라 분포 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부터 몸통까지의 길이는 59~68cm이며 꼬리길이는 40~45cm로 몸통의 길이보다 약간 짧다. 몸무게는 보통 2~3kg이다. 지역별로 색의 변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의 대부분은 밝은 갈색으로 꼬리, 앞·뒷발은 검은색이며 턱부터 가슴까지는 노란색을 띤다. 짝짓기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로 교미 시기는 여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신 기간은 6개월로 3~5마리를 출산한다. 서식지는 주로 울창한 산림지역으로 2~3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의 생활도 가능하다. 먹이식성은 잡식성으로 식물의 열매와 꿀을 선호하며 멧토끼, 고라니 새끼, 양서류, 파충류, 조류, 소형설치류 등 먹이섭食的 폭이 넓기 때문에 현재 상위 포식자가 대부분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산림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달



형태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다. 머리는 원형이고, 코는 둥글며, 눈은 작고, 귀는 짧아서 주름가죽에 덮여 털 속에 묻혀 있다. 꼬리는 둥글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네 다리는 짧고 발가락은 발톱까지 물갈퀴로 되어 있어 헤엄치기에 편리하며 걸어 다닐 때 발가락 전체가 땅에 닿는다. 온몸에 밀생한 짧은 털은 굵고 암갈색이며 광택 있는 가시 털로 몸 아랫면은 담색이다. 목 아래와 머리의 양쪽은 회색이고, 귀의 끝은 연한 빛갈이다. 다리·입술의 밑 중앙부에 백색의 반점이 있다.

물이 있는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 발톱이 약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야행성이고, 낮에는 보금자리에서 쉬며, 갑자기 위험 상태에 놓이면 물속으로 잠복한다. 외부감각이 발달되어 밤낮으로 잘 보며,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고, 후각으로 물

고기의 존재, 천적의 습격 등을 감지한다.

먹이는 주로 어류이고, 비늘이 있는 것보다 없거나 적은 메기·가물치·미꾸리 등을 잡아먹는다. 개구리·게도 잘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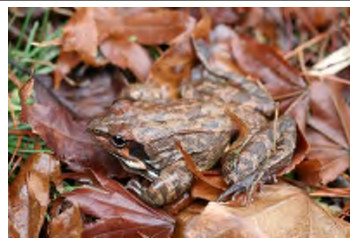
번식기는 1~2월이며 임신기간은 63~70일이고, 한배에 2~4마리를 낳는다. 암컷은 새끼를 낳은 후 50일이 지나야 비로소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새끼들은 6개월간 어미수달과 같이 지낸다.

참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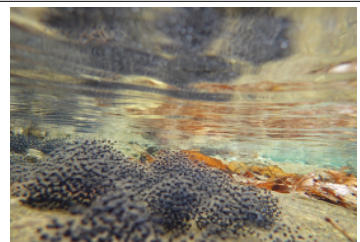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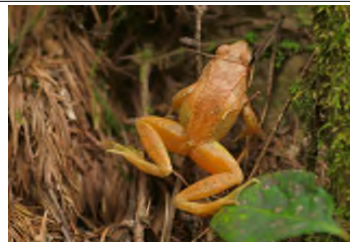
몸길이 6~9cm이다. 논개구리라고도 한다. 암컷의 등면에는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큰 검은색 무늬가 있으며, 수컷은 대개 황색을 띤 갈색이고 검은색 무늬가 거의 없다. 등면 세로로 축을 따라 긴 피부 융기와 담황색의 배중선(背中線)이 있다. 수컷은 턱의 기부에 좌우 1쌍의 울음주머니가 있다. 4~6월에 못자리나 논·연못 등에서 산란한다. 알은 다른 물체에 부착하지 않고,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부화한다. 1개의 알 덩어리에는 1,000개 정도의 알이 들어 있으며, 알의 크기는 1.6~1.8mm이다. 거미·지네·곤충 등을 먹는다. 한국에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로서 식용이나 사료로 쓰이며, 실험동물로서도 쓰인다.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북방산개구리



몸길이 4~7cm이다. 등면은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이나 검은빛을 띤 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흩어져 있다. 고막의 주위에 검은색의 가로무늬가 있고, 콧등에 점무늬가 있다. 배면에는 회색의 구름무늬가 있다. 주둥이 끝은 둥글고 안비선이 뚜렷하며, 고막은 뚜렷하고 대체로 원형을 이룬다. 몸통은 좁고 가늘며, 옆 융기가 뚜렷하다. 수컷이 암컷보다 작으며, 산란기는 4~5월이다. 산간 계류나 물이 괴어 있는 곳에 서식한다.

계곡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주둥이는 둥근 편이다. 몸통은 어두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북방산개구리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고막은 눈 직경의 1/2 또는 1/2 미만으로 작은 편이다. 물갈퀴는 매우 발달한 편이다. 배면은 누런빛에 검은 점이 무수히 많이 산재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계곡에서 서식하며, 알은 3월부터 관찰된다. 유속이 있는 하천 돌이나 물 가장자리에 알을 단단히 붙여 낳는 특징이 있다.

서어나무



서나무라고도 하며 나무이름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쪽에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추측된다. 주로 산지에서 자라며 흔하게 발견된다. 모양새가 비슷한 나무의 종류는 개서어나무, 까치박달, 소사나무 등이 있다. 높이는 15m, 지름은 1m에 달한다. 나무 껍질은 회색이고 근육처럼 울퉁불퉁하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5.5~7.5cm의 타원 모양 또는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이 길게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겹 톱니가 있으며 뒷면 맥 위에 털이 있다. 꽃은 암수한그루이고 5월에 피며 미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수꽃이삭은 작은 가지에 달리고 밑으로 처지며, 수꽃은 각 포에 1개씩 달리고 8개의 수술이 있으며 수술대는 2개로 갈라진다. 암꽃이삭은 자루가 있으며, 암꽃은 각 포에 2개씩 들어 있고 암술머리는 2개이다. 열매이삭은 긴 원기둥 모양이고 길이가 4~8cm이며 밑으로 처지고, 포는 4~8개이고 한쪽에 깊이 패어 들어간 톱니가 있으며 반대쪽 밑에 1개의 돌기가 있다. 열매는 소견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보물 제125호. 높이 1.33m. 비신(碑身)은 현재 경북궁 근정전 회랑에 훼손된 채로 보관되어 있으며 절터에는 비신을 받쳤던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 있다. 이 비는 신라 제39대 소성왕의 비 계화부인(桂花夫人)이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미타불상을 조성할 때 세운 것으로, 건립연대는 801년으로 추정된다. 이수에는 '阿彌陀佛□□(아미타불□□)'이라는 여섯 글자를 2행으로 새겼는데, 이수 왼쪽 면에는 김정희(金正喜)의 조사기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쌍귀부는 부러져 없어졌으며 이수의 일부분도 부러졌다. 귀부의 발은 도식화되었으며 귀갑 중앙에 장방형의 높다란 비좌를 설정하고 비좌 네면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조각하였다.

이처럼 귀부에 십이지신상을 조식한	무장사터 3층석탑 에 속한다. 잘린 이수에는 반룡(蟠龍: 승천하지 않은 용)이 운기문(雲氣文) 속에서 앞발로 여의주	
		

무장사터는 경주시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깊은 산골에 있으며,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병기와 투구를 매장한 곳이라는 뜻으로 ‘무장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즉 병기가 필요없는 평화스러운 시대를 열겠다는 문무왕의 결연한 의지가 이 절을 창건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또한 절 안에 3층석탑을 세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이다. 아래층 기단은 각 면마다 모서리기둥과 가운데기둥 2개를 새겼고, 윗층 기단은 동그란 안상(眼象)을 각 면에 2개씩 조각하였다.

탑의 중심부분인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되어 있으며, 1층 몸돌은 조금 높은 편이다. 몸돌의 각 모서리에는 층마다 기둥 모양이 조각되었을 뿐 다른 장식은 없다. 각 층의 지붕돌은 크기의 줄어든 정도가 적당하고, 지붕돌 밑면의 받침은 5단이며, 처마는 직선을 이루다가 양 끝에서 부드럽게 살짝 들려있다.

1층 몸돌이 조금 높지만 간략화가 심하지 않고, 기단부에 새겨둔 안상은 양식상 시대가 내려움을 의미하므로 9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 무너진 채 깨어져 있었던 것을 1963년 일부를 보충하여 다시 세웠다.